기술금융 부익부 빈익빈…창업 싹 자른다

■ 은행연합회 보고서 분석

기술 평가 우수 등급 기업 비중
창업 1년 미만 4%, 12~20년 25%
자산규모 1억 미만 2% 불과

안전성 우선 기술력 평가 뒷전
덩치 크고 오래된 기업 자금 몰려

창조경제의 영향으로 기술창업에 대한 독려와 창업절차 간소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획일적 기술평가 기준 탓에 무늬만 기술금융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창업자금을 필요로하는 새내기 기업의 경우 기술력과 무관하게 저평가되면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창업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기술금융 트렌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역사가 오래되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일수록 기술등급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이 기술등급 평가에서 T1~T6 등급(우수등급)을 받은 비중은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기술등급은 T1~T10 등급까지 있으며, T6 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금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창업한 지 12~20년인 기업은 24.9%, 20년 이상인 기업은 13.97%가 T 6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또 기술평가에서 자산규모가 1억원 미만인 기업이 우수등급을 받은 비율은 2.21%에 불과한 반면 자산규모가 10억~100억원인 기업은 53.1%,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8.1%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일수록 평균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경향이 지난 9개월간 뚜렷하게 유지됐다.

이처럼 오래된 기업에 기술금융 지원이 집중된데 대해 은행관계자들은 "회사 업력과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필요 자금 소요가 많아 기술금융 지원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업력과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기술평가 우수등급을 받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매달 우수등급을 받는 창업 1년 미만, 자산 1억원 미만, 종업원 수 4명 미만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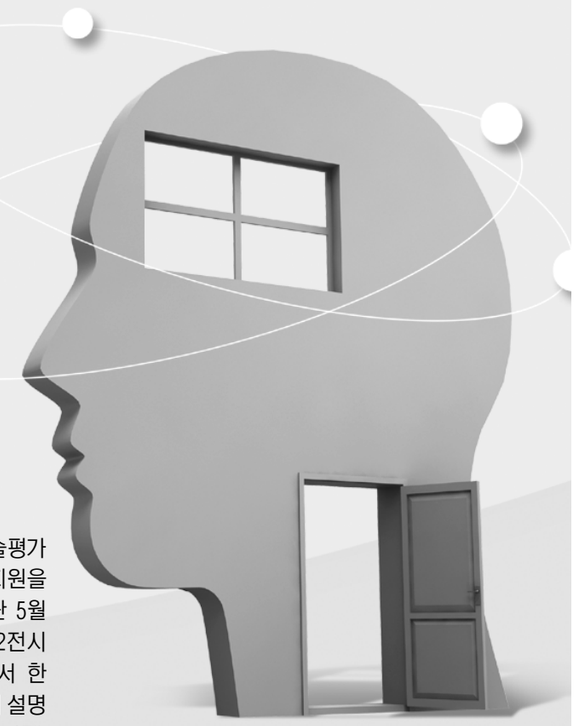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금융이 보유 기술의 우수성이나 은행 자체 심사능력 제고와 무관하게 단순히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창업초기 기반이 약한 새내기 창업기업에 불리한 구조에서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의 취지에서 벗어나 안전성 위주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이 은행 자체 심사능력 제고와 무관하게 단순히 TCB 평가서에 기반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토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업전문가들은 새내기 창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이 기술심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좀 더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2013년 7월부터 기술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작년 12월 기업은행은 금융연수원에 기술금융 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기술금융 전문 인력과 심사역, 영업직원 등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식충전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향후 자체적 기술평가 모형의 개발·운영을 통해 기술금융을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중은행들이 획일적 기술평가 기준으로 무늬만 기술창업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에서 한 참여업체가 개발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보 '퍼스트펭귄 기업' 지원 늘린다

성장성 갖추고 신시장 개척 앞장서는 기업
연말까지 70곳 추가 선정 최대 30억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하 신보)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가치와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도입한 '퍼스트펭귄 기업'에 대해 운영성과 분석을 실시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퍼스트펭귄 기업은 무리 중 첫 번째로 위험한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펭귄과 같이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아이디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으로 신보의 내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신보는 현재까지 103개 기업을 퍼스트펭귄 기업으로 선정했고 연말까지 70여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보는 지난해 지원한 퍼스트펭귄 기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과 평균 고용 증가율이 각각 54.2%와 18.6%에 달했으며, 설립 후 2년 이내인 일반 창업기업 보다 높은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를 낸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과 평균 고용 증가율은 각각 24.0%, 8.0%포인트를 기록했다.

신보의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면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3년간 최대 30억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보증연계투자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때 금리우대 등 금융상의 우대조치와 함께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병홍 신용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퍼스트펭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퍼스트펭귄 기업을 내년까지 총 300개 기업으로 확대·발굴하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우수한 창업기업의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조계헌 소장의 톡톡 창업 이야기

다점포 운영전략 핵심은 점장

과포화된 자영업 시장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은 많은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몬다. 하지만, 생존에 성공한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내공이 쌓여 생긴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는 다점포전략으로 눈을 돌린다. 여러 개의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는 다점포 전략은 오너가 전체 점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자칫 고객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점포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역량있는 점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점장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하나의 점포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다. 그러다보니 점장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책임감이다. 점장은 사업주 못지않게 해당 점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원, 메뉴, 위생, 고객, 매출, 마케팅, 시설, 리스크, 교육, 안전관리 등 매장 전반의 운영에 관해 독자적인 기획과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점장의 업무영역이 중요하고 넓다보니 다점포 창업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는 점장이라고 말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일 잘하는 점장들이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관리 행위 중 하나는 직원간의 관계, 직원과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교역할이다. 기업으로 따지자면 부서장쯤 되는 점장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관리업무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인간관계 부문은 화합과 단결을 위해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지라 중간지점에 있는 점장의 섬세하고 노련한 처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점장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척도는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오랜 경험을 위안삼아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게을리하는 점장들은 틀에 짜여진 운영마인드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무난해 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빠른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결국 경쟁력이 밋밋한 점장으로 전락하기 쉽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역량있고 책임감 강한 점장을 선발해서 다점포전략을 승리로 이끄는 자영업자들도 많지만 반대로 점장고용에 대한 실패로 되려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점장을 고용하는 기준은 사업주 재량이기는 하지만 점장을 선발할 때 점장으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아니다. 그런 고용방식은 인간적인 신뢰감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은 생길 수 있겠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매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기존 관계마저 퇴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점포 창업전략 차원에서의 점장 수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잡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의 투자형 창업시 필요한 점장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점포의 운영방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시장의 흐름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점장의 수요와 그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 · 성범죄 / 개인회생 · 파산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농성공원옆 주유소부지, 큰대로변
차량통행많음, 커피전문점,식당
차량관련사업체추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운암동 아파트단지 우수상권
편의점, PC방, 카페 추천
지하1층~지상3층
대지 532㎡ 건물 796㎡
감정가 8억 5천
최저가 5억 9천

첨단병원 맞은편 장례식장건물
요양병원 오피스텔 추천
지상5층 주차장시설완비
대지 1706㎡ 건물 3040㎡
감정가 36억 7천
최저가 25억 7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 협(김희진)175359-56-130180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유한메디카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